

光州日뢖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9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8월 29일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국가AI컴퓨팅센터 경쟁····삼성SDS, 누구와 손 잡나

사업 신청 내일 마감 … 광주·전남·전북 최종 입지 후보지 유력 삼성 SDS·네이버클라우드 등 컨소시엄 후보지 한 곳 선택할 듯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사업 신청 마감 일(21일)을 앞두고 호남이 유력한 최종 입지 후보 지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삼성 SDS가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KT 등과 손잡고 광주, 전남·북지역 중한 곳을 후보지로 내 세운 사업 제안서를 과기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나섬으로써 AI 컴퓨팅센 터 호남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 석이 나온다.

19일 광주시·전남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 SDS를 중심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KT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대거 참여한 컨소시엄이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 측은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20일 자체 임 원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택해 지자체에 통 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복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 컨소 시엄을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만큼 삼성SDS 컨소시엄이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호남권 자치단체가 미래 먹거리확보를 위해 센터 유 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삼성 컨소시엄이 어 느 지역에 손을 내밀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2028년까지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 2030년까지 총 5만 장 규모의 AI 인프라를 완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에는 민관을 합쳐 2조원이 넘는 거액이 투입되며, 민간 기업에 최대 25% 투자 세액공 제와 신속한 전력 계통 영향평가 등 여러 혜택이주어진다.

삼성SDS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KT와 손 잡고 강력한 컨소시엄을 결성, 독주 체제를 굳혀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SDS가 대형 클라우드 사업 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빅텐트'를 완성하면서 사 실상 단독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다른 경쟁 기업들은 사업성 등 여러 조건을 검토 중이 나, 삼성SDS 컨소시엄을 능가할 만한 역량을 갖 춘 곳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광주시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고 자평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는 것이 핵심 강점이다.

광주시는 북구 오룡동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내 5만㎡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시는 최근 한국전력공 사로부터 GPU 1만5000장이 설치되는 국가AI컨 퓨팅센터의 초기 전력 40㎞를 비롯해 5만장까지 확장할 경우 필요한 전력 120㎞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술적 분석자료를 받았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첨단변전소가 직선거리 300m 내에 위치해 정전·화재 등에 대비한 예비전력(이중화) 공급도 가능해 안전성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는 지난 2020년부터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을 통해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국가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기업과 연구자에게 GPU 연산을 클라우드로 제공한 노하우, 연산 성능 88.5페타플롭스와 100페타바이트급 스토리지를 실제로 운영한 점이 타지자체와는 차별화되는 경쟁력이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지난 14일 삼성SDS측을 만나 광주유치 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또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전남이 꼽는 사업 부지 는 해남과 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 '솔라 시도'다.

당장 지난 9월 삼성측은 전남도에 기업도시 '솔라시도' 내 154Kv(킬로볼트) 변전소 구축 시기와 변접소와 인접한 부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타지해다.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이와 관련, 김동철 한국전 력공사사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 SDS는 지난 10일 솔라시도를 방문해 부지를 둘러 봤으며, 이 과정에서 전력 공급 방안과 공업용수 등 컴퓨팅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요소들과 정주 여 건 등도 논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지난 14일 삼성SDS 측을 직접 만나 전남을 후보지로 AI 컴퓨팅센터 공모에 참여할 경우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는 21일 접수를 마감한 뒤 11월 중 기술·정책 평가(1단계), 12월 금융 심사(2단계)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SPC 출범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 및 출자를 완료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이 19일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대표, 김영록 전남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속하게 하겠다"

구례서 77주기 합동 추념식

이재명 대통령이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 순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강 조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에도 지지부진한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7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순 사건 기념일인 19일 "다 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주기를 맞이한 여·순 사건 기념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구례군 지리산 역사문화관 에서 열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진상조 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약 속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는 이념의 굴레와 갈등 속에서 진실규명과 해원을 바라는 유족들의 절박한 호소를 온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 며 "여순의 비극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올해 여순 사건 77주기 합동추념식은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거행됐다. 추념식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77년 만에 희생자와 유족이 만날 수 있었다. /김민석 기자 mskim@

김세영, 고향에서 LPGA 우승컵

해남서 열린 BMW 챔피언십 "가족들 앞에서 우승꿈 이뤘다"

'영암 출신' 김세영이 고향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30만달러)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관련기사 18면〉김세영은 19일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합해 5언더파 67타의 성적표를 작

성하면서 24언더파 264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호남 지역에서 처음 열린 LPGA대회인데다 고향에서 우승컵을 차지한 만큼 김세영의 기쁨은 더 컸다. 김세영은 "가족들 앞에서 우승하는 것을 꿈꿨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한국에서 열리는 LPGA에서 우승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쁘다. 조금이나마 한국 팬들에게 좋은 기운을 드린 것 같아서 기쁘다"며 "5년 동안 우승이 없어서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 걱정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하다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왔다. 한 번 잃



어버린 걸 다시 찾는 게 어렵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오랜만에 우승을 한 만큼 계속 해서 우승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남=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